

# 형제회의 상태

국가 형제회 회장

얀 파커

친애하는 형제자매들,

약 1 년 전, 제 딸과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 장소 중 하나인 "작은 교회"에 들렀습니다. 그날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기 전에 함께 기도했습니다. 그로부터 여러 달 동안 화학 요법을 받았고 벌써 1 년이 지났습니다.

저는 지난 한 해 동안 프란치스칸 가족의 사랑과 지원, 기도에 대해 정말 감사했고,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이 기적이라고 여기는 일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. 오늘 저는 암이 없기 때문입니다.

물론 이 소식을 듣고 큰 안도감이 들었지만 기쁨과 함께 떨리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. *"암이 잘 나았나? 그 모든 것을 다시 겪을 수 있을까?"*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다른 암 생존자들은 그들도 일종의 외상 후 어떻게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지 저에게 말했습니다.

올 한 해 시련을 겪어야 했던 사람이 저 혼자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되돌아봅니다.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**우리 형제회의 상태가 우리 각자의 상태에 크게 좌우된다**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
우리는 모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. 자연재해, 정치적 분열, 사회적 불안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삶에 있어서 건강 문제, 고립, 실직, 급격한 변화.

**이 전염병은 우리 각자에게 영향을 미쳤고 우리 형제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.** 형제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섬기는 지도자들이 과도한 짐에 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. 많은 평의회가 더 긴 기간 동안 봉사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. 우리가 떠맡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. 가끔 생각합니다. 암에 걸렸는데, 1 년을 더 국가형제회 회장으로 보낼 수 있을까? 여러분도 "계속할 수 있을까?" 질문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.

그렇다면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둘러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?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.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.

지난주 어느 날 아침,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이 저를 괴롭혔을 때 저는 지역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 다이얼을 맞추었습니다. 그러자, 그들은 "일 분 말씀 (A Minute in the Word)"을 할 시간이라고 발표했습니다. 나는 종종 성경에 대해 이 작은 성찰을 하는 라디오 진행자 중 한 명인 샌디에게서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귀를 기울였습니다. 그녀가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*"당신이 누군지 아십니까?"* (그때 정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).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*"몇 년 전 상담 중에 제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. 나는 과연 누구인가? 그것은 생각을 자극하고 내 영혼에 좋은 것이었습니다... 당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?"* 그런 다음 그녀는 이 성경 말씀을 나누었습니다. ***"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..."*** (예레미야 1:5)

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. *하느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. 즉 완전히 아시고,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정신을 차리게 하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. 당신이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알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.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더 온전히 품을 수 있습니다."*

이 메시지가 내 마음에 울려 퍼졌다. 나는 진정으로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 계십니다. 하느님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.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.

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듯이 내 눈은 부엌에 걸려 있는 **"주 너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"**라고 적힌 명판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. 그날 아침에 필요한 격려를 받았고 **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.**

희망은 활력을 불어넣습니다. 희망에 관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는 로마서 5 장 5 절입니다. 이 구절은 **"희망은 실망하게 하지 아니하며..."** 이 약속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! 이 구절의 나머지 부분은 내가 기쁨을 느끼는 이유를 알려줍니다. **"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."**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아름다운 이미지는 메리 비트너 (국가 형제회 부회장)의 집에 전시되어 있습니다. 이미지를 둘러싸고 있는 인용문은 그리스어로 로마서 5:5의 같은 구절의 일부입니다. **"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."** 이것은 아름다운 사실이며,

우리 형제회의 상태에 대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확실히 설명합니다. 국가 형제회로서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부어졌습니다.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.

이 전염병은 우리를 늦추지 않았습니다. 우리가 보낸 한 해에도 불구하고, 그리고 이 총회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가상으로만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**실망하지 않았습니다**. 우리는 계속해서 **“부름에 합당한 삶”을 살았고**, 성령 덕분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.

*커스틴 말콤 베리의 작품,*

[www.KirstenMalcolmBerry.com](http://www.KirstenMalcolmBerry.com)

*허가를 받아 사용*